과학기술이 가사노동수행양식에 미친 영향[1)]

— 가사노동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

An Effect of Household Technology on Housework

— Focused on mechanization of housework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이 기 영
박사과정 김 성 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i Young Lee
Doctoral Course : Sung Hee Kim

〈목 차〉

Ⅰ. 서 론
Ⅱ. 가정기기의 도입배경
Ⅲ. 가사노동 수행양식의 변화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troduced household machines during the industrial period and the effect of them on housework. This study utilized the methods of historical research.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The method and process of housework was altered dramatically by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household machines during the industrial period.

(2) Household machines made housework more easy and timesaving but they had little effect on the houseworker's total burdens because of the rising standards, the addition of new housework and the return of housework to the home which had bean substituted by the market services.

1) 본 연구는 '94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한수통상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사노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역사성을 지닌 일반노동의 한 형태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현대과학기술이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난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산업화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에까지 그 생산영역을 확대시켜왔다. 이에 따라 주로 여성의 힘에 의존하던 가사노동도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기계에 의존하는 자본집약적인 것이 되었다.

현재 산업화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양식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사회화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이기영, 1987 ; 정연주·문숙재, 1987). 가사노동의 기계화도 산업화의 한 결과이지만 이것이 가사노동 수행양식에 미치는 효과는 상품대체나 사회화와는 다르다. 극단적인 경우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는 가정을 완전히 시장의존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반면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가사노동을 가정내에 존속시키고 시장대체된 가사노동을 귀환시키기조차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변화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기계화는 상품대체나 사회화와 분리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현대과학기술이 실용화되어 새로운 가정기기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가정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가정내 가사양식은 급격히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정기기와 관련된 가사노동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어떤 기기가 언제 개발·보급되었는지 이에 관한 기초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각종 가정기기가 발명되고 보급되는 19세기부터 가정기기에 관한 기록과 연구가 있어 왔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가사노동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Giedion, 1948 ; Hartmann, 1974 ; Strasser, 1982 ; Cowan, 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과학기술에 의한 산업화의 영향 중 특히 가사노동의 기계화에 촛점을 두고 이것이 가사노동수행양식에 미친 영향을 가사노동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앞으로 가사노동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전망과 과제도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일차적 목표는 가정기기에 관한 자료들이 소실·소멸되기 전에 가사노동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포착해 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가사노동의 역사적 변동을 파악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정기기의 역사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각종 문숙자료, 공식문서나 통계치, 잡지, 신문, 사진 등 획득가능한 문헌자료는 모두 이용한다. 개인적인 기술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개인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자신을 재생산하므로 개인적 서술도 충분히 그 시대의 가사노동상을 반영한다고 본다.

과학기술은 과학을 주축으로 생산력에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수단을 말한다. 가정생산과 관련된 과학기술로서 가정기기는 소비내구재와 시설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설정한다. 시설설비는 직접적으로 가정기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정기기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킨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의 수행방식이나 생산방법은 시대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공통된 유사성을 보이므로 이를 가사노동수행양식이라 명명한다.

Ⅱ. 가정기기의 도입배경

Hartmann(1974)은 가사노동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생산재화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규모의 감소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기계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산업화과정에 촛점을 두어 경제체계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즉 대량생산체계와 소득의 증가, 고용구조변화에 의한 가정고용인의 감소, 여성취업의 증가 측면에서 가정기기의 도입배경을 논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한 가정기기의 생산과 보급은 무엇보다도 산업화의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는 것은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부터다. 60년대에 전자산업이 태동하고 70년대에는 수출증가로 전자산업·전기기기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 80년대에는 산업자동화가 확산되어 제조품들의 원가가 절감된다(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1991:198). 가정기기를 포함한 가구내구재의 경우 1980년 이후 가격상승폭은 이전보다 작게 나타난다(통계청, 1985, 1990).[2] Bryant(1986)에 따르면 이같은 가격변화는 대체비용을 변화시켜 가정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은 구매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기기의 보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가구·가사용품은 문화생활용품비의 성격을 지니므로 가계소득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1965년 이래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1979, 1992). 가구·가사용품비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광열, 1988 ; 김영숙·심미영, 1994).

가정기기는 가정고용인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가정고용인의 감소도 가정기기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0년대 말까지 주로 이농인구에 의해 공급되던 가정고용인은 70년대초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사라지기 시작한다(박세일, 1992).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진 가사노동의 기계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촉진하게 된다. 주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하므로써 생활개선의 차원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키거나, 여성의 임금율을 상승시켜 구매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기계화를 촉진시킨다. 가정고용인과 가정기기의 보급사이의 인과의 방향은 연구의 촛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Hartmann, 1974). 가정고용인의 감소가 가정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가정기기의 증가가 가정고용인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적으로 볼 때 주요 가정기기의 보급보다 가정고용인의 감소가 앞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가정고용인의 감소가 가정기기의 도입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기회의 증가로 인한 취업여성의 증가도 시간제약을 증가시켜 가정기기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보고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4:113). 취업여성의 증가가 가정기기의 보급보다 앞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취업과 가정기기 사용간에는 상한관계가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지만(Oppenheimer, 1970) 관계가 없다고 밝히는 연구도 있다(이승미, 1989 ; Nickol & Fox, 1983). 주부에게 위임되는 가정기기의 관리·유지 역할이(Galbraith, 1973) 취업주부의 가정기기의 도입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가사노동 수행양식의 변화

1. 식생활과 관련된 변화

1) 취사기기 및 연료의 변화

취사기기가 다양해지기 전까지 난방을 겸하는 아궁이는 취사도구로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아궁이의 연료로 사용되던 임산연료는 해방후까지도 생필품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산연료는 6.25이후 산이 황폐해지고 가격이 오르

2)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가구내구재의 경우 80년을 100으로 할 때 75년에는 지수가 84.7이고 85년에는 101.7로 가격상승폭이 80년대에 훨씬 작게 나타난다.

면서 연탄으로 대체되었다(대한석탄협회, 1988). 한편 1966년의 연탄파동은 보조연료로서 석유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1969년에 전국 석유관로 보유율은 62.1%에 이르렀다(문화공보부, 1969: 136). 가스사용이 늘어나기 전까지 석유는 연탄과 더불어 취사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가스의 사용은 1973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한국가스공사, 1988:47). 1974년에는 가스레인지가 개발되었고, 취사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1985년 전국 26.4%에서 1990년 81.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1992). 전기밥솥, 전기후라이팬, 전자밥통, 만능쿠커와 같은 가전주방용품을 이용한 취사기기의 전화(電化)는 7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1975년 무렵부터 잡지에서는 이에 관한 광고가 대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사용 연료 중 전기의 사용율은 낮아 1985년에도 전국 1.4%의 사용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1992). 최근 90년대 들어서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전기취사기기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취사용 전기 사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상작에서 석유, 가스 그리고 전기로의 취사연료의 변화와 취사기기의 변화는 불을 얻는데 드는 힘과 시간을 줄여 주었다. 장작을 쓸 때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관리하고 재를 아침 저녁으로 정소해야 했다. 연탄을 사용하면서 불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은 사라졌다. 석유곤로는 불을 붙이고 끄는 것을 자유롭게 했고 재도 남기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의 사용은 불을 키고 끄는 것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었다. 전기밥솥은 연료의 공급과 관리를 공직인 서비스체계로 이전시키고 예약취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불을 관리하는 과정이 간편해지면서 영양과 요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장작을 이용했을 때는 불을 얻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음식 준비에는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매끼 다른 식단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취사기기가 발전한 오늘날은 더 많은 조리와 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영양과 요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다.[3] 식생활에서 상품대체율이 낮은 한[4] 높아진 가족요구는 더 많은 주부노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외식의 이용은[5] 취사와 관련된 주부노동이 감소되고 있고 가정취사기기의 효용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식생활과 관련된 주부노동의 결과는 가정기기의 효과 뿐 아니라 상품대체의 효과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식품보관방법의 변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에 음식보관하기는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 1934년 한 신문에서는(조선중앙일보, 1934) 여름철 음식보관방법으로 땅속에 보관하기와 물속에 담가두기를 권하고 있다.

국내에서 냉장고는 1965년에 처음 개발되었다(박카금성, 1988). 보급초기에 냉장고의 가격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6] 보유가구비율은 1970년에 이르러서도 전국 2.1%에 지나지 않았다(경제기획원, 1979). 냉장고가 생활필수품화되는 것은 도시에서는 1980년경(보유율 51.5%) 농촌에서는 1985년경(보유율 56.1%)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1992).

냉장고는 여름철 음식보관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대량구입을 가능하게 해서 장보기와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을 절약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냉장고의 보유율이 크게 늘어나는 1975년(윤복자)과 1994년(이기영외 3인) 사이에 도

3) 1인1일 영양공급량의 증가와 식품소비량의 증가는(통계청, 1992)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다.

4) 이기영(1987)연구에 의하면 식생활에서 대량생산에 의한 상품대체는 라면과 과자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 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7.5%, 1990년 20.4%, 1992년 23.6%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도시가계연보, 1993).

6) 1965년 개발된 냉장고의 가격은 8만6백원이었던데 비해 1965년의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380원(경제기획원, 1974)이었다.

시 비취업주부의 평일 장보기 시간은 0.6시간(경영시간 포함)에서 0.58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선한 식품에 대한 식생활 표준의 증가와 식품다양성에 대한 요구증가가 식품구입빈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써 시간절약의 편익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냉장고의 대형화 경향은 이러한 식품구입량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장보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절약적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식품 특히 냉장·가공식품의 저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활의 간소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조리과정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곡식찧기는 부녀의 일과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 사학자 이능화는 조선부녀들은 저녁에는 보리를 말리었다가 절구질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이능화, 1982:274). 곡식찧기에 이용된 기구로는 절구, 맷돌, 돌절구, 방아, 연자매가 있었다(조선경제연보, 1941).

곡식찧기는 일제시대에 정미기가 유입되고 정미소가 생기면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부식을 찧고 양념을 찧는 일만이 절구와 맷돌로 계속 되었다. 믹서(브렌더)는 1970년을 전후로 "때때로 변화있는 별식을"이라는 광고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믹서보급율은 1969년 도시에서 11.3%이던 것이(문화공보부, 1969), 1979년에는 전국 38%, 1989년에는 64%로 증가했다(한국전력공사, 1992). 보급이 늘어난 믹서는 80년대 들어서면서는 "건강쥬스를 만드는" 주서믹서로 발전되었다.

일상의 곡식찧기는 가정기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미소라는 사회시설에 의해 사라졌다. 믹서는 곡식찧기가 사라진 뒤 양념이나 부식을 찧는 일에서 주부의 손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믹서의 사용율은 월 4회 정도로(한국전력공사, 1992) 일상적인 부식찧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믹서는 별식만들기나 건강쥬스 만들기와 같은 새로운 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식기세척의 변화

예전의 일상적인 설겆이는 따로 설겆이대 없이 부뚜막에 놓인 개수통에서 이루어졌다(한국민속촌편, 1979). 부엌에 상하수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설겆이는 물을 길어다 하거나 마당의 우물가에서 해야 했다. 물을 얻기 어렵다 보니 자연히 물을 아껴쓰게 되었다. 1960년에도 더러운 물에 행주빨기와 그릇씻기를 계속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원사, 1960: 176).

전통적인 부엌에서의 설겆이의 불편함은 부엌이 입식화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싱크대에 관한 광고가 70년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부엌개량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시부에서의 입식부엌 보유율은 1980년 34.8%에서 1985년에는 54.9%(경제기획원, 1980,1985), 1990년에는 61.3%(통계청, 19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겆이에서의 기계화는 다른 어떤 일에서보다 늦게 90년대 들어 일어났다. 부엌이 입식화되고 외식비율이 높아져 설겆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때에 기계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기와 관련된 식생활양식, 부엌공간의 제한, 고가의 비용이 기계화의 제한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서울·부천 조사에서는 식기세척기의 보유율이 4.4%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김귀란, 1991). 앞으로 식기세척기의 일반화는 한국형 식생활양식에 맞는 기기의 보급,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의식의 변화, 주부취업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기세척기가 일반화될 경우 주부의 설겆이는 분명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릇을 정리·보관하는 일은 여전히 주부의 일로 남게 될 것이고, 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 주부에게 새로이 부가될 것이다.

2. 의생활과 관련된 변화

1) 상하수도시설의 변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생활용수는 우물물,

샘물, 냇물, 강물을 이용하였다. 집에 우물이 있는 일부 가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자들이 매일 물을 얻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 동네끝에서 샘을 떠다 먹었다는 한 할머니는 한 끼에도 대여섯번씩 물을 이어야 했고 저녁 때에는 여나믄번씩 이어야 했다고 한다(성춘식, 1990).

서울에 수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08년의 일이다(김의원, 1982:668). 그러나 8.15해방후까지도 각 호구에 대한 개별급수는 드물었고 공동수도에 의한 급수가 일반적인 급수형태였다. 공동수도는 공동우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물지게를 져서 받아와야 했기 때문에 주부의 노동을 줄여주지는 못했다.[7] 주부들이 물긷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개별수도가 설치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는 여성잡지에서 공동수도의 문제가 사라지는 때로 수도가 등장하고도 한참 후인 70년대 초가 된다. 그러나 1970년에도 전국의 상수도 보급율은 33.2%에 불과했다(통계청, 1991).

하수도의 설치는 서울의 경우 1918년부터 시작되었다(김의원, 1982:673). 1970년의 조사에 의하면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가구는 도시의 경우 64%로 나타나지만 농촌의 경우는 6.5%로 보고된다(용문숙, 1970:25). 그러나 1988년 조사에서는 농가에도 하수도 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49.3%의 농가가 부엌하수도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농협중앙회, 1988:4).

상하수배관이 부엌에 들어 오면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기 위해 마당을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가사노동의 중심공간이 마당에서 부엌으로 옮겨지고 물을 길어오고 버리는 주부의 노동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가족의 요구는 증가하여서 청소와 세탁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인당 급수량의 증가는[8] 물과 관련된 주부노동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세탁과정의 변화

세탁기가 생기기 이전 빨래를 한다는 것은 주부에겐 힘이 많이 드는 노동이었다. 삶는 일에서부터 두드리고 문지르고 비틀어 짜기까지 힘들이지 않고 되는 일은 없었다.

국내에서 세탁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의 일이다(럭키금성, 1989). 세탁기는 사라지는 가정고용인을 대신해서 주부의 일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세탁기는 세탁과정의 힘든 일을 덜어주었지만 빨래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대체해 주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일을 부가시키기도 했다.

보급율로 볼 때 세탁기도 초기에는 소득계층에 따라 보급에 차이가 있었다. 1975년 전국 보유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통계청, 1992). 이런 계층에 따른 차이는 시부에서는 1990년 들어 보유율 72.0%가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 무렵 세탁일은 계층이 다른 도시 주부간에 차이가 없는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9] 그러나 군부에서는 아직 보유율이 낮아(41.7%) 지역간 차이는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탁기가 생기기 전에는 의복의 수도 적었지만 옷도 자주 갈아 입지 않았다. 세탁양은 적었고 계절적으로 특히 겨울에는 세탁빈도가 적었다. 세탁기의 등장으로 세탁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세탁양[10]은 증가하였다. 예전에 세탁기가 없던 시절의 빨래는 냇가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한담을 나누며 하는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탁기의 등장은 세탁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었다. 세탁기의 등장으로 더 편해진 오늘날의 주부들이 빨래를

7) 1956년의 한 공동수도 사진에는(한영수, 1987) 물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모두 여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1인 1일당 급수량은 1961년 102 l 에서 1971년 173 l 1981년 264 l, 1991년 372 l 로 증가하였다(통계청a, 1992).

9) 세탁기가 보급되기 전 상류층의 세탁일은 가정고용인의 일이었다. Hartmann(1974)의 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세탁기의 보급은 세탁소가 아닌 가정고용인에게서 주부에게로 세탁일을 귀환시켰다고 볼 수 있다.

10) 1인당 섬유소비량으로 볼 때, 전섬유소비량은 1966년 3.1kg에서 1984년 9.7kg으로 증가하였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0, 1985).

힘들고 싫어하는 일로 꼽고 있는 것은(코래드, 1991 ; 권구종, 1993:41에서 재인용) 이러한 고립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세탁기는 세탁에 들이는 주부의 노고를 줄여주기도 했지만 빨래빈도와 빨래양 그리고 고립감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편익을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다림질의 변화

예전에는 주로 무명과 베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 후 반드시 다림질을 해야 했다. 다림질은 숯을 피워 넣게 되어 있는 숯다리미를 이용하였다. 숯다리미질의 어려움을 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산 같은 빨래를 다리자면 졸리고 괴롭고… 숯 가지고 다리니 금방 사그라지지. 불이 다리는데 숯이 그리 좋은 게 있나.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지(성춘식, 1990)."

우리나라에서 전기다리미가 언제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64년까지도 전기다리미를 소유한 가정이 드물 것으로 보아(여상, 1964.10.) 이 때까지도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1969년에는 전기다리미의 보유가 전도시가구의 62.1%(문화공보부, 1969) 1979년에는 전국가구의 84%(한국전력공사, 19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0년대말 쯤 전기다리미의 생산이 확대되어 70년대는 거의 모든 가정이 전기다리미를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합성섬유가 보급되어 다림질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던 때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나일론 공장이 세워지고 이후 여러 합성섬유공장들이 1960년대에 세워진다.[11] 1969년의 한 잡지 글은 농촌에서도 나일론의 출현으로 다리고 다듬이질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전한다(여성동아, 1969.3.).

전기다리미의 보급으로 숯에 달구어 써야 하는 숯불다리미의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의복손질의 수고를 덜어 준 것은 전기다리미의 등장에 의해서라기보다 새로운 섬유의 등장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합성섬유의 보급이 다림질에 대한 요구를 줄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천연섬유 선호와 같은 의생활의 고급화로 다시금 다림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12] 주부의 다림질은 세탁소의 이용을 통해 감소될 수도 있으나 다림질의 서비스시장대체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13]

4) 바느질과정의 변화

조선의 부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하던 일 중의 하나가 바느질이었다. 손바느질의 어려움을 한 할머니는 구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바느질하자면 호롱불 해놓고 밤새도록 일하느라 잠을 못잤다"(성춘식, 1990).

우리나라에 재봉기계가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900년 제국신문에 광고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개화기에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봉틀의 가격은 1928년의 경우 80원으로 당시 쌀한가마니 가격 20원과 비교해 상당히 비싼 것이었다. 하인의 도움없이 손수 옷을 지어야 했을 일반 주부들에게 재봉틀은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봉틀이 보편화되는 것은 6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60년의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에는 재봉틀이 조사되고 있지 않지만 1970년에는 재봉틀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의 전국의 재봉틀 보유율은 41.8%, 시부 41.8%, 군부 41.7%로 나타나고 있다(경제기획원, 1979). 그러나 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다시 재봉틀이 누락되고 있다. 결국 재봉틀은 60

11) 1963년 나일론, 1967년 아크릴, 1968년 폴리프로필렌,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텔 공장이 세워졌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12) 월 평균 다리미 사용횟수는 1990년 8회에서 1992년 9회로, 다리미 소비 전력은722W에서 755W로 증가했다(한국전력공사, 1990, 1992).

13) 1987년 조사에서(이기영, 1987) 양복다림질을 거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42.8%, 거의 시장에서 하는 경우는 9.7%로 보고되고 있다.

년대에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양복점의 전성시대로 맞춤옷이 성행하던 시기이고(김진식, 1990:175) 기성복도 등장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재봉틀은 일상복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봉틀은 가사노동 절약기기로서보다는 부업수단이나 생활비를 절약시켜주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더 이용되었다. 재봉틀은 1985년에도 서울시의 경우 보유율이 48.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85).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그 보유율이 증가되지 않은 유일한 가정기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성연출수단이나 홈패션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취미생활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첨부된 재봉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주생활과 관련된 변화

1) 난방기기의 변화

온돌을 주로 사용하는 좌식주거양식에서 스토브나 난로와 같은 기기를 이용한 입식난방법은 주된 난방법이 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된 난방설비인 아궁이가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은 70년대에 보급되는 보일러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일러가 설치되면서 주부는 여러 곳의 난방을 한 기기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일러의 온수 덕분에 물을 데우고 운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궁이가 사라진 부엌은 입식화가 가능해졌고 욕실과 아랫목이 사라진 방은 가족내의 서열질서를 완화시켰다. 이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온 보일러는 시부에서는 1985년에 68.1%의 보급율로 그리고 군부에서는 1990년에 67%의 보급율로 일반화되었다(통계청, 1992).

보일러의 연료는 1990년에 이르기까지도 연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통계청, 1992). 보일러 시설 자체는 여러면에서 가정생활을 변화시켰지만 주연료가 연탄인 한 제 때에 연료를 갈아주고 재를 청소하는 일을 계속해야했다. 그러나 보일러의 연료가 기름과 가스로 대체되면서 이런 잡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은 빠르고 쾌적한 난방을 가능하게 하므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장판과 전기팬히터의 보유(한국전력공사, 1992:162)는 이런 전기의 장점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아궁이에서 보일러, 연탄에서 석유·가스·전기로의 연료변화는 난방에 들이는 힘과 시간을 덜어주었다. 보유율이 100%를 넘고 있는 선풍기와 아직 보유율은 낮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어컨은(한국전력공사, 1992:162) 여름의 냉방도 용이한 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냉난방법의 개선으로 주부는 이제 더 이상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료와 기기의 등장은 화재와 고장의 위험성을 높여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냉난방의 개선은 직접적으로 냉난방 수행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줄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적 노동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방법의 변화

전기청소기가 생기기 전 청소기구로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걸레, 총채가 사용되었다. 전기청소기가 잡지광고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60년 중반 경이다. 그 때의 광고문안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청소기"였다. 청소기는 이렇게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기계로 소개되었다.

전기청소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60년대이지만 보급율은 저조해서 1987년에도 전국 보유율은 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물걸레형 청소기가 보급되는 1990년 전후로 보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1989년에는 전국가구의 18%, 1991년에는 31%가 전기청소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1992:162).

전기청소기는 작업자세를 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켜 주었고 청소시간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주거규모의 증대와[10] 청결의식의 증가로 인해 청소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도시 비취업주부의 경우 평일 청소시간은 1975년(윤복자)에는 1.1시간, 1994년(이기영와 3인)에는 1.09시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전기청소기를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청소시간이 증가된 주택규모와 청결의식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가정기기는 60년대에 대부분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급의 확대는 대체로 70년대 들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기기의 도입과 확산은 가사노동의 수행방식과 내용을 크게 변용시켰다. 무엇보다도 가정기기는 가사노동 수행과정에서 힘과 시간을 절약시켜주었다. 취사기기와 난방기기의 발전은 불을 얻는데 드는 시간과 힘을 줄여주었고 냉장고의 도입은 여름철 음식보관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세탁기는 빨래하는 과정의 힘든 일을 대신하였고 청소기는 쓸고 닦는 힘과 시간을 줄여주었다. 가정기기 덕분에 사람들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더 청결한 집에서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상에서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가정기기가 주부들을 편하게 해주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가정기기는 주부의 노동을 덜어준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취사기기와 상하수시설, 세탁기, 청소기의 경우 관련활동에 대한 요구증가로 절약효과는 상쇄되었다. 주부의 다림질은 전기다리미라는 가정기기가 아닌 합성섬유라는 새로운 섬유소재에 의해 그 부담이 덜어졌다. 이처럼 기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상품에 의해 주부노동이 덜어지는 경우는 재봉틀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가정기기의 보유는 주부가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 즉 각종 기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부가시키기도 하였다. 상류층 주부의 경우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와 같은 기기는 가정고용인에게 이양되었던 노동을 주부에게 귀환시킴으로써 주부노동을 증가시키기도 했다.[15] 결국 가정기기는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을 절감시키면서 따른 한편으로는 부가시키는 양면성을 나타내므로써 가사노동을 덜어주는데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덜어 주지 못한 것은 몇몇 시간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16]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주부의 일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계층에 따른 수행양식의 차이를 완화시켜주었다. 가정기기에 의한 효율적 가사노동의 수행은 거의 모든 계층의 주부가 비슷한 가정기기를 소유하므로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가정기기의 도입은 특히 가정고용인의 조력없이 스스로 가사일을 행하던 노동계층의 여성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기기의 보급은 노동절약의 요구보다 과시요구가 큰 도시상류층에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주부의 효율성을 동시적으로 높여주지는 못하였다.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경우 노동절약적 가정기기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보유는 낮았고 상류층보다 기기 보유가 늦게 이루어졌다.[17] 앞으로 가정기기의 소득계층에 따른 보급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적부조나 대여, 임대와 같은 다양한 공급방식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급의 초기단계에서는 공동세탁기, 공동냉동기의 운영과 같은 집단적 사용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별구매의 경우에는 노동절약적 기기에 대해 조세를 감면시켜주거나 취업관련비용으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저소득층 취업주부를

14) 1975년 서부 가구당 건평은 35.8m², 방수는 1.9개, 1990년에는 건평 48.3m², 방수 2.5개로 조사된다(통계청, 1992).

15) 시장상품화된 일이 다시 가정으로 귀환되는 경우는 참기름제조기, 재빵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 가정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는 70년대와 80년대에 가사노동시간은 8-10시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영금, 1989). Robinson(1980)은 1965년과 1975년 미국의 가사노동시간조사에서 감소를 발견하였지만 이것은 기술발달보다 가족구조의 변화나 여성 취업의 증대, 생활표준의 유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17) 1983년의 경우 전국 기혼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중졸이하의 경우 3,077천명인데 비해 상류층이라 볼 수 있는 전문대졸이상은 91천명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4:116). 1985년에도 세탁기보유율은 전국 26.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통계청, 1992) 이 무렵 상류층 주부는 세탁기를 보유한 반면 저소득층 취업주부는 대부분 세탁기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기기는 주부들을 기기와 더불어 가정에 고립되게 하는 효과도 나타냈다. 일과 더불어 맺어지던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노동과정에서 느끼던 육체적 리듬감, 몰입의 기쁨같은 만족감은 감소되었다. 기계화는 노동과정에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감소시켜 노동자의 소외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노동자를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창조자의 위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창조적 활동을 통한 자율성과 만족감의 회복은 개인의 자기개발과 사회의 기회제공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는 처음부터 필요를 가진 주부가 아닌 이윤의 동기를 가진 남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판매되었다. 따라서 가정기기의 보유는 반드시 주부효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동식기세척기는 다른 어떤 기기보다 늦게 개발되었고 청소기의 보급은 늦게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 외에 손맛과 같은 비효율적인 면이 가정생활의 질로 상징되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가정기기는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주부의 효율과 관계없는 가정기기의 생산·판매·사용은 심각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는 낭비와 오염을 재평가하여 요구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와같은 일은 개인적 자각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육과정이나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더 발전된 가전제품과 가사로보트의 보급, 전자주택의 보급은 가사노동수행을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종 컴퓨터·통신기기의 보급은 재택근무,재택자영업과 같은 새로운 취업양식을 창출시켜서 주부취업을 더욱 증가시켜 줄 전망이다. 그러나 가사자동화 자체는 획일화에 대한 배척과 모든 가정생산과정의 기계화의 제한, 기업과 소비자측의 경제적 효용성 보장 면에서 한계성을 갖게 된다(김외숙외 2인, 1991:322).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가정기기에 의한 주부노동감소에는 양면성으로 한계가 있었다. 가사의 완전자동화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주부는 가사자동화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가정결합 속에서 취업주부가 가정과 직업의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공유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남성에 대한 계속적인 가사교육의 필요성이 이 연구로부터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74, 1993.
2)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1985.
3) 경향신문, 1947.3.31.
4) 권구종, 가전사의 세탁기 광고전략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5) 김귀란,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사회화실태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6) 김영숙·심미영, 도시 근로자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7) 김외숙·이기영·최은숙,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1991.
8)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1982.
9) 김진식, 한국양복100년사, 미리내,1990.
10)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가생활양식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1988.
11) 대한석탄협회, 탄협40년사, 1988.
12) 럭키금성, 럭키금성, 제55호, 1988, 1989
13) 문화공보부, 한국생활문화실태조사보고서, 1969.
14) 박세일,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92.
15) 성춘식 구술, 신경란 편집, 이부자리 피어 놓고 임만 바래도 안와, 뿌리깊은나무, 1990.
16) 여상, 1964.10., 1965.7.
17) 여성동아, 1969.3.
18) 여원사출판부, 가정, 현대여성생활전서 제 10권, 여원사, 1960.
19) 용문숙, 한국가정의 부엌관리실태에 대한 위생학적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20) 유광필, 한국소비자경제론, 매일경제신문사, 1988.
21) 윤복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1975.
22)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23) 이기영외 3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1994.
24) 이능화 · 김상억 역, 조선여속고, 대양서적, 1982.
25)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6) 정연주 · 문숙재,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987.
27) 정영금,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2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85.
29) 조선경제연보, 1941.2.
30) 조선중앙일보, 1934. 6. 12.
31)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 한길사, 1991.
32) 통계청, 물가연보, 1985, 1990.
3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79, 1991, 1992.
34) 통계청a,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2.
35)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5년사, 1988.
3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근세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 섬유분야, 한국과학재단, 1993.
37) 한국민속촌편, 한국민속, 영서문화사, 1979.
3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공업통계, 1980, 1985, 1990.
39)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40) 한국전력공사,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1990, 1992.
41) 한영수, 삶, 한영수 사진전, 신태양사, 1987.
42) Bryant, W.K., "Technical Change and the Family : An Initial Foray", in R.E.Deacon & W.E. Huffman(eds.), Human Resources Research 1887-1987 Proceedings, Ames, Iowa College of Home Ecomonics, Iowa State Univ, 1986.
43) Cowan, R.S., More Work for Mother, New York : Basic Books, 1983.
44) Galbraith, J.K., "The Economics of the American Housewife", The Atlantic, Vol.232, No.2, August 1973.
45) Giedion, Siegfried, Mechanization Takes Comma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46) Hartmann, H.I.,"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1900-193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4.
47) Nickols, S.Y. and K.D. Fox,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September 1983.
48) Oppenheimer, V.K.,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iton, Population Monograph Series no.5, Berkeley, Calif., 1970.
49) Robinson, John P.,"Housework Technology and Household Work", in Sarah F. Berk ed., Women and Household Labor, Sage Yearbooks in Women's Policy Studies vol.5, Sage Publications, 1980.
50) Strasser, Susan M., Never Done, Pantheon Books, New York, 1982.